

취소

인쇄하기

국제사회에 백신 요청한 北...이인영 '러브콜' 받을까

통일장관, 남북 보건협력 의지 재차 발신
 짝 막힌 남북관계 '게임체인저' 관측
 정부 제안에도 침묵한 北, 호응 관건
 냉랭해진 여론 설득도 '넘어야 할 산'

등록 2021-01-06 오전 12:00:00
 수정 2021-01-06 오전 12:00:00
 김미경 기자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에 코로나19 백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 간 보건·방역 협력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고리로 한 보건 분야 협력을 남북관계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보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북측에 연일 러브콜을 발신해왔다. 관건은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제안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의 호응이다. 북측의 잦은 도발로 냉랭해진 국내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비정부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에 코로나19 백신을 얻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

다. 가비는 자체 백신 개발과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 국가에 코로나19 백신을 분배하기 위한 코백스(COVAX)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단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안해 온 코로나19 관련 협력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보건 협력을 매개로 꼭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도 한반도 전체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북한에 백신이나 치료제 등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남북 보건협력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제재 면제는 이미 국제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감염병의 특성상 남북 간 공동 대응이 꼭 필요하다는 구상에서다. 북한이 당장은 침묵하고 있지만 이달 초순 당 대회 개최 이후 반응할 것이라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통일부는 5일 북한의 백신 요청을 계기로 남북 간 보건 협력의 진전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북한의 백신 요청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은 국제기구에서 확인해 줄 사안"이라고만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이 지난해 11월 우리 측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백신의 대북지원을 시사했다가 역풍을 맞은 만큼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6월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대남 도발로 대북지원에 냉랭해진 국내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은 큰 과제다. 정부 측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북한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면서도 "국내 기업이 치료제 개발을 완료하고 나면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은 물론이고, 비판 여론도 가실 것"이라고 기대했다.